"다큐 PD로 카메라 잡았습니다"

영화 '드림' 아이유

홈리스 축구단 좌충우돌 도전기
노숙자들 이야기 매력적
차기작은 악역 해보고 싶어

"'드림'은 홈리스 축구단의 이야기잖아요. 이들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오는 26일 개봉하는 이병헌 감독의 신작 '드림'은 저마다 사연을 품은 노숙인들이 모여 태극마크를 달고 '홈리스 월드컵'에 출전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배우 겸 가수 아이유는 선수단을 발탁해 이들의 출전기를 카메라에 담는 PD 소민을 연기했다.

선수들과 감독 홍대(박서준 분)를 뒤에서 지원해주는 역할이다 보니 분량이 많지는 않다. 그간 '나의 아저씨', '호텔 델루나' 등 드라마에서는 물론이고 '브로커' 등 영화에서도 대부분 극을 이끌어갔던 만큼 아이유가 소민 역을 맡은 데 고개가 갸웃하기도 한다.

최근 만난 아이유는 "(노숙인들이) 가장 중요한 스토리라는 게 오히려 좋았다"며 "한 명 한 명의 캐릭터도 매력적이어서 작품에 꼭 참여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10대 때 표지 모델을 하면서 '빅이슈'의 취지에 관해 설명 들었던 기억이 나요. 영화 초반부에 이 잡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감이 왔죠. 주제 의식이 무척 마음에 와닿았어요. 호흡이 빠르고 재밌는 요소가 많지만,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진심은 무겁다고 생각했어요."

소민이 "사연 없는 인물"이라는 점도 마음에 들었다고 한다. 소민은 주위에서 쉽사리 볼 수 있는, 열정은 소진됐지만 밝고 단순하고 솔직한 20대다. 아이유는 직접 영화에서 입을 의상을 골라 "어제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찌든 외모"로 소민의 모습을 연출했다고 한다.

2008년 가수로 데뷔한 아이유는 2011년 '드림하이'를 시작으로 꾸준히 배우로 활동하고 있다. 고등학생부터 연예인, 고려 여인, 빚에 시달리는 청춘까지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며 '배우 이지은'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전작 '브로커'로는 아기를 버린 미혼모 소영을 연기해 지난해 열린 제75회 칸국제영화제 레드 카펫을 밟기도 했다.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 주경기장을 가득 채우는 유일한 여자 솔로로 꼽힐 만큼 가수로서의 입지도 독보적이다. 아이유는 흘러가는 대로 그때그때 매사의 선택을 해왔다면서도 "30대에 막 접어든 지금은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다"며 웃었다.

"10~20대 때는 음악에 제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아서 주도권이 제게 있었어요. 반면 연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앞으로도 흘러가는 대로 활동을 하지 않을까 싶지만, 팬들이 섭섭하지 않게 배우와 가수 양쪽의 균형을 잘 맞춰보려고요."

그러면서도 그는 연기에서만큼은 "덜 착한 역할을 해보고 싶다"며 웃었다.

"어제 문득 든 생각인데, 최근 작품에서 계속 메시지가 강하고 캐릭터도 착한 역할을 해왔잖아요. 조금 덜 깊은 사람을 해보고 싶어요. 나쁜 사람들이 나와서 망하는 얘기를 다뤄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연합뉴스

문화예술로 본 광주의 어제와 오늘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다음달 2일~16일 역사문화시민대학 개설

지난해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 역사문화시민대학 일환으로 진행한 문화 탐방 장면.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제공〉

문화예술 시각으로 광주의 어제와 오늘을 다면적으로 들여다보는 강좌가 개설됐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사장 김덕진)은 오는 5월 2일부터 5월 16일까지(매주 화·목 오후 3시) 진행하는 역사문화시민대학이 그것.

광주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세미나실에서 '그때 그 시절 광주, 어릴 적 기억을 마주하다'를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강좌는 광주의 역사적 사실과 마주하는 여정에 초점을 맞췄다. 광주를 중심으로 전남까지의 근·현대 역사를 이해하고 축제, 연극 등을 모티브로 어제와 오늘의 광주를 조망해보는 자리다.

첫 번째 강좌는 5월 2일 조광철 광주역사민속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이 '광주골목에 숨겨진 우리 동네 이야기'를 주제로 시민을 만난다. 이어 '광주·전남 문화운동의 출발점'(5월 4일, 전용호 전광주전남소설가협회 회장, '광주·전남 축제로 만나는 어린 시절' (5월 9일, 전고필 이목구심서 대표), '연극배우가 들려주는 5·18, 그 끝나지 않은 이야기'(5월 11일, 푸른연극마을 대표)가 이어진다.

오는 5월16에는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군산 근·현대 역사 중심지를 살펴보는 문화탐방도 진행한다.

선착순 40명이며 희망자는 재단 사무처(062-234-2727)로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는 3만원으로 교재비와 답사 비용 모두 포함.

김덕진 재단 이사장은 "올해로 열두 번째를 맞이한 역사문화시민대학은 지난 2011년부터 기후, 질병, 음식 여행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와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며 "이번 강좌 는 문화 시각을 매개로 광주의 근대 역사를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 청소년을 위한 협주곡 연주회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27일 북구문화센터 공연장

음악을 전공하는 예술꿈나무들에게 오케스트라 협연 무대를 제공하는 의미있는 연주회가 열린다.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대표 김유정)는 오는 27일 오후 7시 광주 북구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청소년을 위한 협주곡 연주회'를 개최한다.

지역에서 악기를 전공하는 대학 재학생, 초·중·고 학생들이 오케스트라와 함께 협주곡을 연주하는 공연으로 정병휘 지휘자(서울대 음악대학 외래교수)가 지휘봉을 잡는다.

무대에서 선보이는 프로그램은 아콜라이 '바이올린협주곡 제1번 1악장'(김도은), 생상 '첼로협주곡 제1번 3악장'(서민결), 랄로 '스페인교향곡' 1악장(서도현), 타파넬 '플루트환상곡 1악장'(김혜원), 랄로 '첼로협주곡 라단조 3악장'(김도연),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협주곡 라장조 3악장'(와베미나), 그리그 '피아노협주곡 가단조'(박시영), 세주르네 '마림바협주곡 3악장'(변재민) 등이며 도플러의 '4플루트를 위한 안단테-론도'를 김희진·김예원·양서현·조윤아가 연주한다.

1999년 5월 창단한 광주여성필아모닉은 전국 최초·전국 유일의 여성으로 구성된 전문연주단체로 창단후 현재까지 530여 회 공연했다. 다음 공연은 오는 5월 30일 열리는 '민주주의 상징 문화콘텐츠 제작사업'의 '창작 관현악곡 연주회'다. 전석 초대. 문의 010-3625-5115.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어린이·가족 함께 볼 공연작품 공모

ACC재단, 다음달 8일까지…지역 예술단체 우대

어린이와 가족을 주요 관객으로 하는 공연을 공모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ACC 어린이극장 공동기획 '렛츠 플레이(Let's PLAY)' 작품 공모를 5월 8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극장 및 어린이공연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공연 장르 제한은 없다. 특히 초연작품과 광주 및 전남지역 예술단체를 우대한다. 단 어린이극장 무대와 객석 규모에 적합해야 한다.

공모에 선정될 경우 소정의 경비와 함께 ACC 어린이극장 공연장 및 부대장비 등 극장 운영과 홍보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최종 선정된 작품은 올해 어린이극장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누리집 참조.

한편 ACC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은 어린이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 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어린이 문화발전소다. 그동안 아시아 여러 나라의 문화와 예술을 소재로 다양한 놀이와 체험·예술적 창작활동을 펼쳐 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초등생 개성 만점 '손글씨' 찾아요

최명희문학관 글쓰기 공모전…9월 17일까지 일기·편지

최명희문학관이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글쓰기 공모전 '날아가는 지렁이 고사리손에 잡히다!'를 연다.

혼불기념사업회와 공동으로 여는 이번 공모전은 한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은 자신의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쓴 편지와 일기가 대상이다. 전국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희망자는 최명희문학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작품과 함께 9월 17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전북 전주시 완산구 최명희길 29)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난 2007년부터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최고 글쓰기 공모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전라북도교육감상과 상품을 주는 등 모두 113명의 학생에게 상장과 상품을 선물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